
第121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保健社會委員會會議錄 第2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日時 2000年9月7日(木) 午後2時

場所 保健社會委員會會議室

議事日程

1. 女性政策官所管業務報告의件

審査된案件

1. 女性政策官所管業務報告의件 ... 2面

(14時 17分 開議)

○委員長 李喆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위원 여러분 그리고 盧美惠 女性政策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무척 반갑습니다.

21세기는 과거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많은 변화와 새로운 일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와 관련해서 최근 복지사회의 실현이 경제성장 못지 않게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나 최저 생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저소득층의 상당수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더욱이 최근에 경제위기 속에서 다소나마 여유를 찾게 된 지금에 와서도 우리의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특히 사회적 열외에 있으며 소득수준도 낮은 노인, 장애인, 아동, 청소년들과 여성들은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자립할 수 없는 계층이므로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시민들의 복지욕구가 다양화되고 고도화되는 추세에 따라서 우리 실정에 맞는 제대로 된 사회복지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이에 부응하고 선진화에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7월의 문교보사위원회에서 분리 신설된 우리 위원회가 시민 중심의 열린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1. 女性政策官所管業務報告의件

(14時 20分)

○委員長 李喆鎬;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議事棒 3打)

盧美惠 여성정책관이 나오셔서 참석한 간부를 소개한 후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존경하는 서울特別市議會 보건사회위

원회 李喆鎬 委員長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정책관 盧美惠입니다.

민선 2기 하반기 시정을 이끌어 나가시기 위하여 보건사회
위원회에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탁월한 고견과 아낌 없는 지도편달 등
을 통하여 저희 여성정책관 소속 전 직원이 시정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제121회 임시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기에 앞서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幹部紹介:여성開發擔當官 文洪善, 南部女性發展센터所長
金龍求, 政策企劃팀長 金允圭, 能力開發팀長 朱容台, 團體支
援팀長 金善石, 家族福祉팀長 金良基, 保育팀長 鄭正順, 兒童
福祉팀長 宋星憲, 女性福祉팀長 李基英, 中部女性發展센터所
長 鄭惠善, 北部女性發展센터所長 金惠善, 婦女保護所長 林正
愛, 兒童相談所長 李正喜, 市立西部女性發展센터所長 李惠善,
市立領步慈愛院院長 梁仁淑, 市立少年의집院長 許成蘭)

시립동부아동상담소 김보애 소장은 학회에 참석차 미국 출
장중입니다.

여성정책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
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

(報告)

여성정책관소관 業務報告

(뒤에 실음)

.....

지금까지 여성정책관 소관 2000년도 주요 업무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그리고 현안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아울러 이번 제121회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새롭게 지적해 주신 고견을 저희 직원들은 명심하여 여성정책 분야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업무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李喆鎬;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고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한 20분을 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은 洪承采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洪承采 委員; 감사합니다. 洪承采 委員입니다.

요즘에 우리 여성정책관실의 업무가 많이 늘었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洪承采 委員; 많이 늘었고 팀도 많이 늘었고 그렇게 되시죠? 그런데 처음부터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4쪽에 보건사회위원회 간담회 10월 중 개최 예정, 여성정책관실에서 우리 보건사회위원회 마음대로 열 수 있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요청을 하겠습니다.

○洪承采 委員; 요청으로 고치세요. 어떻게 개최 예정입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요청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洪承采 委員;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님 허가도 없이 여기다가 개최 예정이라고 해 놓으면 되겠어요?

- 女性政策官 盧美惠; 죄송합니다.
- 洪承采 委員; 방과후교실 말인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교육청과의 협의내용이 구체화된 적이 있습니까?
-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가 99년도 초에 각 교육청에 담당 업무하는 분과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다 참여해서 회의를 개최한 적이 있었습니다.
- 洪承采 委員; 더 이렇게 늘려가려고 예정하고 계시는데 잘 안 되지요?
-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금 그래도 30개소씩 계획대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 洪承采 委員; 계획 대로요
-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 洪承采 委員; 원래 60 몇 %지요?
- 女性政策官 盧美惠; 보육률은 69.1%입니다.
- 洪承采 委員; 학교들이 잘 말을 안 들을 텐데요.
-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가 지원액이 좀 늘어나서 금년도 부터는 58만원 정도로 월당 70만원에서 128만원으로 증액을 했습니다.
- 그리고 컴퓨터 구입비도 지원하고 그래서 지원액이 늘어났는데요, 금년도 수행사항을 저희가 아직은 작년 말까지는 검토가 되었는데 금년도 지원액의 변화에 따른 수행사항은 아직 점검을 못했습니다.
- 내주 중이나 저희가 한번 나가 보려고 합니다.
- 洪承采 委員; 그 내용이 전반적으로 다시 걸러져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보면 초등학교 정도의 수준에서 대개 부모가 취업하고 있는 경우는 저학년이겠지요.
- 그런데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는 학교장의 반대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 내용이 혹시 파악되신 것이 있어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지금 36개소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작년도에는 30개소였습니다. 좀 늘어났거든요. 그런데 운영현황에 대한 부분을 지금 저희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9월 중에 저희가 점검을 할 계획으로 나가볼 계획입니다.

○洪承采 委員; 이것도 보육팀에서 맡고 있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그렇습니다.

○洪承采 委員; 이게 95년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인 줄 잘 아시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95년도에 여성발전기본법과 그쪽 계획을 하면서 방과후를 96년도 1/4분기 중에 처음으로 방과후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게 아마 여성개발원과 정부 복지부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서울시에 와서 놀랜 것은 그 당시에 초기 개발 당시 96년도, 97년도 초까지도 교육부에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인력이나 운영의 문제, 재난의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교육부에서는 도저히 이것은 운영을 할 수 없다는 입장 이어서 그때 시범적으로 2개교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시에 와 보니까 30개소가 이미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 다.

○洪承采 委員; 영유아보육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이전에 규정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당시에 95년도에 360개소를 늘리겠다 해서 당시에 50개소가 채 안 되게 학교시설과 종교, 그 다음에 법인에서 이렇게 되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구립보육시설 내에서 민간보육시설 내에서는 시설수, 현재 운영하는 현황에 대한 리브리핑에 불과하지 결국

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연속성의 문제인 것이고요.

지금 서울시가 주관점을 두고 있는 것은 학교시설을 통한 애프터스쿨의 경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 36개 시설이라는 말이죠. 지금 정책관님 말씀처럼 하면 학교에서 문을 안 열고 있다고 보셔야 돼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런데 저는 처음 개발할 당시를 생각하면 서울시가 오픈을 많이 한 것으로 아는데.....

○洪承采 委員; 몇 년 됐는데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니요, 97년도에 시작해서 98년도에 늘리기 시작했고 99년도에.....

○洪承采 委員; 그것은 예산이 조금 더 늘어났을 뿐이죠. 처음에 있었던 몇 천만원 수준에서 전체 시설에 주는 것 그런 정도였고요. 지금 36개 시설이라고 하면 제가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인데요. 정책관님이 99년도 초에 학교에 운영하고 있는 시설담당자들하고 회의를 하셨다고 하셨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교장선생님들하고 얘기했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러셨겠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아직도 문을 열고 있지 않는 초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담당자들에게, 또 교장들에게 우리 서울시가 이것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있는 내용에 대한 사전 프리젠테이션이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만큼 주고 좀더 향후 계속해서 늘어나는 지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하려고 하는지 간단해요.

지금 教育部가 반대했던 전체의 이유를 교장선생님이 들고

있는 겁니다. 애들 하나라도 넘어져서 머리가 깨지거나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또 봉급은 주고 그 다음에 관리는 어떻게 할 거냐, 말 그대로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 교육집단입니다.

그런데 그 교육집단의 문을 열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이 99년 초에 운영자하고 교장선생님하고 타협했을 정도였다 그 것은 좀 문제가 보이거든요. 보육팀장, 좀 일어나 보시죠.

그 다음에 학교당국에 노력한 것 있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 부분은 9월에 운영 현황을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서 학교장님들, 교육청과 노력을 하겠습니다.

○洪承采 委員; 제가 이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그 때는 이런 말씀 잘 못 드렸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돈은 있는데, 줄 돈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있고요. 학교가 문을 안 열죠? 학교만이 개수가 잘 안 늘어나죠?

보세요, 이게 복지시설 15개, 이 중에서 순수한 차원에서 서울시가 몇 년에 걸쳐 두 가지 정도의 집중적인 것을 했다고 보면 말 그대로 초등학교이고 종교시설입니다. 정확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맞습니다.

○洪承采 委員; 기존에 다 하고 있던 연속성의 문제였다니까요. 나머지 순수하게 독립해서 정말 女性政策官室과 그 전에 家庭福祉局 소관에 계셨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루어 놓았던 시설이 54개소라고 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대전제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정책관님 자꾸 이렇게 변명 비슷하게 하시려고 하지 말고.....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알았습니다.

○洪承采 委員; 종교시설 마찬가지로입니다. 학교시설 마찬가지로입니다.

이렇게 문을 안 여는 이유가 분명해진다고 하면 이런 노력들이 99년 초에 이것 한 번 했다? 이것은 안 되는 일이겠죠. 물론 바쁜지 알고 업무가 굉장히.....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런 것은 이해를 충분히 합니다. 허나 예를 들어서 칠십 몇 만원 주다가 128만원까지 주면서 50만원 늘고 컴퓨터 구입비까지 주고 갈수록 당근은 더 내려가는 것 아닙니까? 커지잖아요.

Amount는 커지고 주는 당근은 많아지는데 시설을 여는 속도는 원래 계획했던 것과 비교하면 별 것 없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가 99년도에 활성화방안 계획변경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운영현황을 파악을 해서 연간 30개소씩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30개소는 늘어나는 상황에 있습니다.

○洪承采 委員; 정책관님, 그게 아니고 목표가 이렇게 컸다가 줄여놓고 그것은 달성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니요, 왜냐 하면 현실의 문제도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내실 있게 운영하느냐 하는 쪽으로 저희가 작년에 3개년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 3개년 계획 수립에 의해서 30개소씩 늘리는 것으로 계획변경을 작년에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복지시설하고 종교시설의 운영이 의외로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1차적으로 학교시설 운영이 잘 돼야 된다고 보면서도 프로그램 운영을 학교에서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洪承采 委員; 예를 들면 이 애프터스쿨의 문제는 접근성의 문제에 가장 주안점을 두셔야 됩니다. 학교에 묶어놓으려고 하겠다라는 의식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학교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갔다 오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돌아오는 시간까지 아이를 어떻게 돌봐주느냐 하는 문제에 제일 주안점을 두어야 되겠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그렇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복지시설까지 옮겨가는 문제, 종교시설까지 옮겨가는 문제 그런 차원으로 말씀드리는데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학교가 끝나고도 나를 돌봐주는 곳으로 가는 곳, 그리고 엄마로서도 그 잠깐의 틈을 이용할 수 있는 그게 가장 접근성의 문제이죠.

시설이 늘어나는 것의 어떤 퍼센티지 달성률이 제고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오픈마인드를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건데 자꾸 정책관님은 퍼센티지, 달성률, 지금부터 복지시설에 이것 왕창 논의해 볼까요?

돈 주고 복지시설에 만들면 다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99년 초에 한 번밖에 안했다면서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늦었습니다만 9개월 동안 운영비 지원의 변화에 따른 지금까지 운영사항 점검을 해서.....

○洪承采 委員; 그러면 1년 6개월 됐네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니죠, 작년 1월부터 지원사항이 변화됐으니까요. 그러니까 월별지원액이 늘어난 것은 지난 1월

부터이기 때문에…….

○洪承采 委員; 자료요청하기 싫어서 자꾸 이러거든요. 제가 자료요청까지 하기 싫어서 자꾸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좌우지간 그런 노력들이 수반돼야 됩니다.

그런 노력들이 수반이 돼서 학교문을 열고 좀더 정책관님이 적극적으로 교장선생님들을 부르세요. 부를 수 있잖아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우선 실태파악을 하고 하겠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리고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교육청과 협의 좀 하세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교육청에서 조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할 수 있는 학교가 몇 군데인지 보내주고 있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러니까 보내준다고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관계관 같이 협조를 해 가지고 같이 앉아서 적극적으로 유도해 가는 모습을 갖춰야 된다 그런 말이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렇습니다.

○洪承采 委員; 같은 회의방법도 효율성을 갖춰서 하자, 정책관님, 이것 5년 내내 떠들고 있는 얘기입니다. 제가 5년 내내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부서간 협조, 각 기관별 협조, 똑같은 내용으로 5년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회의를 한 번 해도 효율성을 갖추자는 그런 내용이죠.

이것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믿어지는데 내용 있게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주면서 남겨서 또 나중에 넘기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런 것은 이유 없는 불용액 됩니다. 그렇게 하시지

말도록 해 주시고요.

14쪽에 관해서 짧게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동복지프로그램의 확대에 대한 문제인데요. 올해 아동복지위원회가 열렸던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아동복지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洪承采 委員; 없어졌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그렇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러면 어떤 형태로 바뀌었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사회복지협의회로.....

○洪承采 委員; 아동문제 포함돼 가지고.....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그렇습니다.

○洪承采 委員; 거기에 몇 개 위원회가 포함됐나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동복지, 여성복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 포함된 것으로 압니다.

○洪承采 委員; 그게 사회복지심의위원회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洪承采 委員;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제가 여쭙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그룹홈을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 사회복지심의위원회에서 나왔던 의견은 어떻게 돼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언제 사회복지심의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洪承采 委員; 올해 사회복지심의위원회 개최했었다면서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 保健福祉局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保健福祉局 안에서 사회복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런데 열리면 정책관님이.....

-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제가 참여하죠.
- 洪承采 委員; 참여하니가요.
-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룹홈에 대해서 그 부분은 제가.....
- 洪承采 委員; 그러면 사회복지협의회에 우리 女性政策官 산하에서 나온 의견들은 무엇 무엇이 있죠?
- 女性政策官 盧美惠; 의견이 아니라 사회복지심의위원회 최근 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은 각 사회복지관의 평가와 관련한 부분, 이러한 설명회와 의견수렴이 있었습니다.
- 洪承采 委員; 그 사회복지관에 대한 내용 결과가 언제 나오니까?
- 女性政策官 盧美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그것은 용역을 줘서 保健福祉局에서.....
- 洪承采 委員; 그러면 그룹홈도 사회복지기관으로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들어갑니다.
- 洪承采 委員; 그러니까 그런 전체의 테두리 안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체의 테두리 안에 있는데 지금 보면 연간으로 따져볼 때 여기도 그룹홈의 시설운영의 지원내용이 A급에서 D급까지 나뉘지죠?
- 女性政策官 盧美惠; 아직까지는 평가를 안 했기 때문에 평가에 의한 ABCD그룹으로 나뉘서 지원되지는 않습니다만 내년도부터는 평가를 하게 되는 것으로.....
- 洪承采 委員; 하게 되겠죠. 그룹홈마다 사람들 숫자가 다르잖아요.
- 그러면 큰 데는 많이 줘야 되고 적은 데는 적게 주고, 지금 임의편성하시는 겁니까?
-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룹홈이 10인 이내의 조그마한 소규

모 그룹홈입니다.

○洪承采 委員; 매달 지원액은 다를 것 아니에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관리비하고 인건비가 나갑니다.

○洪承采 委員; 그러니까 10인 이내에서 당해 월에 2명 있는 데에 10명을 시설운영할 수 있는 돈을 주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러니까 관리자, 사회복지사 1명하고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생계비는 社會課에서 나가는 별도의 지원액이 되겠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러면 누가 총체적으로 담당을 하면서 한꺼번에 지원을 하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입니다. 저희가 선정하고 지원합니다.

○洪承采 委員; 그러면 社會課에서 생계비 지원을 하고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그렇습니다.

○洪承采 委員; 그렇게 지원을 하면 社會課에서 나가서 그 달에는 몇 명 있는 것인지 확인하는 건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구청을 통해서 보고가 됩니다.

○洪承采 委員; 구청에 위임시켜 놓고 보고되는 대로 지원을 하고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그렇습니다.

○洪承采 委員; 좀 죄송스러운 부탁인데 社會課에서 협조를 해 주셔야 할 문제가 있다라고 보여서 여기에서는 정책건의로 말씀을 드립니다.

상당 부분의 그룹홈 운영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인원수 가지고 장난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그룹홈 운영하는 운영비가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애당초에 관리비하고 운영비만 주는 거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관리비와 사회복지사 인건비입니다.

○洪承采 委員; 1인 인건비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1인 인건비입니다.

○洪承采 委員; 그것도 조금은 미약하지만 정부 급료책정에 의해서 주게 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을 것이고요. 구청에서 들어오는 보고대로 社會課에서는 주고 있단 말이죠?

그 실태과약을 한번쯤은 다시 해 달라는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인원문제라든가 그 안에 있는 내용이 상당부분 저희한테 제보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社會課에서는 인력이 달리기 때문에 그것을 일일이 다 나가서, 그런데 이게 총 몇 개소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룹홈은 4개소입니다.

○洪承采 委員; 女性政策官 소관은 4개고요. 굉장히 많거든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2개 해서 6개소가 되겠습니다.

○洪承采 委員; 장애인쪽 있고 노인들 있고, 또 노인들쪽에는 일시보호시설부터 시작해서 시설별로 굉장히 많거든요. 도저히 인력이 따라잡을 수 없어서 區에서 하는데 區도 그 실태과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표본추출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고 거기는 지원내용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충실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李政恩 委員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政恩 委員; 李政恩 委員입니다.

업무보고 17면 여성발전센터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강사은행제 도입으로 유능한 강사 확보, 강사평가제도를 실시한다고 아까 보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까지 강사평가를 실시한 실적이 있으면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아직 실시하지 않았다면 어떤 방법으로 강사를 평가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강의중인 외래강사의 평가는 교육생 평가하고 그 다음에 강의를 모집률과 탈락률 이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또한 소장평가 등의 항목으로 매 기마다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강사면담 및 개별통지 등을 통해서 개선토록 유도하고 또 강사의 교수법 등에 중대한 결함이 있을 경우에 강사교체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李政恩 委員; 유능한 강사하고 강사평가제도인데 유능한 강사는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유능한 강사 확보라고 그랬습니까? 유능한 강사 확보와 강사평가제도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女性政策官 盧美惠; 외부강사들의 경우에 시간강사들의 경우는 모집을 해서 그 중에서 우수한 강사들을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李政恩 委員; 여성발전센터가 한가한 여성들이 여가활용이나 취미생활 정도나 그 생활을 지도하는 기관으로서만 역할이 국한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1개 기관에 그 운영비가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에 비하면 잘못하면 연간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에서 질문을 하는데요.

여성정책관님께서서는 여성발전센터가 예산만 낭비하는 기관이 되지 않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지금 강사은행제 도입으로 해서 유능한 강사를 확보를 해서 거창하게 이렇게 나가지만 실제로 부녀자들이 여성들이 가서 여가활용이나 또 취미생활 정도 그런 데가 운영면에서 많이 있습니다.

좀더 진지하고 정말 여성들이 과연 거기에 나가서 무어라도 하나 얻어왔다는 그러한 교육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수준은 아닌 것으로 지금 평가들이 되고 있습니다. 총 2만 여명이 여성발전센터 4곳에서 교육을 받고 있고 또 기술교육부분과 생활문화교육으로 나누어서 열심히 강의하고 있고 또 참여자들의 참가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최근 변화를 보고 있습니다.

○李政恩 委員; 구체적으로 기술교육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기술교육은 일반기술교육은 전근대적인 도배, 제과 제빵,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컴퓨터 부분도 아주 중점적으로 4센터에서 모두 수행하고 있고요. 생활문화교육은 다양합니다.

생활문화교육에서도 소규모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있고 또 일반인들의 언어교육도 있고 심지어는 중산층인데도 한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한글교육도 실시하고 있고, 현장에서의 일반주부들의 참여율과 열성은 굉장히 높은 부분들이 많습니다.

○李政恩 委員; 그렇다면 다행한 일인데 예산이 연간 10억 원 예산이라면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좀 내실 있는 교

육이 필요하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15면을 봐주시면 결식아동 급식지원에 요보호아동 현황 안에 결식아동이 1만 5,87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원실적은 현재 3,087명에 7억 2,600만원이 지불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1만 5,875명 중에서 3,087명이라면 나머지 숫자는 1만 2,788명은 어떤 식으로 급식을 지원받고 있습니까?

○李政恩 委員; 그 1만 5,875명은 금년도 2월 중에 경제적으로 결식한 아동뿐만 아니라 결손가정이라든가 실질적으로 먹을 수는 있는데 해 줄 사람이 없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실제로 결식하는 아동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1만 5,875명입니다.

이중에 7,863명은 교육청에서 중식지원을 하는 학생들이고, 일반 석식과 취약전 아동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저희가 8,01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8,012명 중에서 지원받은 학생 총수는 3,087명인데요, 민간단체나 방과후교실 등으로 민간단체의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여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구청을 통해서 나가는 부분이 3,087명이 되겠습니다.

○李政恩 委員; 그러면 1만 5,875명중에서는 민간단체 지원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인데 숫자상으로는 나와 있지 않다는 이거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가 자치구를 통한 것은 3,074명이고 그러니까 1만 5,000명 중에서 7,863명은 교육청을 통해서 지원 받는 학생이고 8,000여명 중에서 저희가 구청을 통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3,087명이고 많은 부분은 민간단체를 통해서 아니면 실업대책반을 통해서 정부의 지원이 이

미 나가서 또 민간후원단체의 지원 받는 부분들 때문에 실질적으로 3,000명밖에 구청을 통해서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李政恩 委員; 아까 여성정책관님께서 경제적 빈곤이나 가족기능 결손 등으로 인해서 실제로 결식하는 아동들의 조식이나 석식을 희망사항에 따라서 지원을 해 준다고 했는데 그 희망사항은 무엇입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도시락 배달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식당을 배정해서 나가거나 이런 식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李政恩 委員; 도시락을 학교로 배달해 줍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학생들은 학교에서 급식을 하기 때문에 학생 중식은 저희가 하지 않습니다. 취학 전 아동의 중식과 석식, 그리고 학생들은 석식 그렇게 되겠습니다.

○李政恩 委員; 이유야 어쨌든 간에 혹시 퍼센티지를 보니까 1만 5,875명에서 3,087명만 나오니까 본위원회는 염려가 되어서 어떻게 나머지 1만 2,000명은 어떻게 돕고 있나라는 뜻에서 질문을 했는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유야 어쨌든 간에 성장하는 어린아이가 아마 1만 5,000명보다도 더 알면 더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밥을 굶고 있다는 그 사실은 참 우리가 가슴 아픈 일이고 우리 기성세대에서 이것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와 이웃들의 꾸준한 관심과 정부지원을 확대해서라도 앞으로 좀더 확대해서라도 어린이들이 배고픈 설움에 시달리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여성정책관께서는 결식아동 급식사업에 좀더 많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계속 독려하겠습니다.

○李政恩 委員;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없는데 한 가지만 더

묻고 싶습니다.

영유아 보육수준 있지요, 6페이지. 그 현황을 보면 영유아 보육시설의 계가 4,088개소를 그 내역으로는 시립이 1개이고 구립이 524개소이고 사립이 3,563개로 보고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민간시설하고 가정놀이방을 합쳐서 그렇습니다.

○李政恩 委員; 영유아보육시설을 확대해서 여성의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현재의 시설을 최대한으로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0년 6월말 현재 이용률이 여기 현황을 보면 83.7%에 불과한데 이용률 제고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이게 지금 국공립시설의 경우는 96.5%입니다.

그런데 민간시설도 지금 80.8%인데 가정 놀이방시설이 지금 66%이고, 직장시설이 77% 수준입니다.

그 쪽은 저희가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이 지금 그렇게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지는 못합니다. 민간시설은 교육기자재하고 특수보육을 위한 부분만 제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아 장애아라든가 또 방과후교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 특수보호시설의 경우에는 저희가 인건비, 관리비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시설의 이용률에 대해서는 시장경제에 따른 부분도 좀 있고 제가 이쪽에 수준향상을 위해서 교사들의 재교육 같은 것도 시키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교육이나 출산휴가 때 대체인력을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수준으로 저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수준이라서 민간보육시설을 너무나 엄

청나게 많은 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것에는 저희가 한계에 있습니다.

○李政恩 委員; 그 상황을 서면으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동료위원인 洪承采 委員님께서 방과후교실 활성화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진로를 밝혀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도 방과후교실 및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방과후교실을 148개소를 사용하고 있지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그렇습니다.

○李政恩 委員; 그런데 그 정원이 4,950명입니다. 그런데 여기 현인원은 3,420명밖에 불과한데 연도별 확충계획을 보면, 2000년도 현재 방과후교실 시설수가 148개소에서 2004년에는 268개소로 확충된다고 했습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연간 30개소씩 늘리게 됩니다.

○李政恩 委員; 이게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용률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용률도 항상 감안하셔서 시의 재정, 아까 월 얼마씩 70만원씩 보조하던 것을 120만원씩 보조를 하면서 컴퓨터도 구입해 주고 다 지원액이 늘어나는데도 왜 학교가 적냐 이러는데 많으면 뭘 합니까, 자기 수용도 제대로 못하면서 쓸데없는 비용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니까 이용률을 항상 감안하셔서 시의 재정지원이 최대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맞습니다. 저희가 이용률이 69.1%입니다. 그런데 복지시설과 종교시설은 76%로 높고 민간보육시설이 제일 낮고 초등학교 구립보육시설이 한 68% 수준입니다.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문제가 뭔가 내실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李政恩 委員;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崔鍾午 委員님께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鍾午 委員; 崔鍾午 委員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1쪽에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회 그 회의는 작년 99년도에 몇 번이나 열었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99년도에 3번 열었습니다.

○崔鍾午 委員; 현재 2000년도 보건사회위원회는 위원으로 누가 위촉되었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이게 임기가 끝나서 재 위촉을 우리가 요청을 하겠습니다만 그 동안에는 李禮子委員이 참여하고 계셨습니다.

세 분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예자위원님과 임호식위원님과 장진국위원님, 세 분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崔鍾午 委員; 알겠습니다.

장진국위원님은 그만 두었기 때문에.....

○女性政策官 盧美惠; 장진국위원님은 그만 두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두 분이, 임기가 9월말에 끝나기 때문에 새로 위촉을 저희가 신청을 하겠습니다.

○崔鍾午 委員; 16쪽에 여성발전센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역여성 사회교육의 거점으로 육성하고자 여성발전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남부, 중부, 북부, 서부 등 4개의 여성발전센터가 있습니다. 이 중 서부는 민간위탁이고 나머지는 시 직영으로 돼 있습니다.

서부에 민간위탁을 언제 하였으며 민간위탁의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민간위탁이후 시 직영센터와 비교하여 드러난 장·단점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서부여성발전센터는 99년 7월에 민간위탁을 했습니다. 남부는 그대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부는 소장과 훈련팀이 계약직으로 4명이 들어왔고 북부는 소장만 계약직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4개 센터가 다 다르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운영이 다른 4개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운영방식을 채택한 지 1년이 됐습니다만 작년 후반부는 변경된 조직으로 운영하는 게 운영되던 것의 연속된 부분들이 있어서 큰 변화를 못 봤고 개선된 것이 2000년 1월이기 때문에 3개월, 4개월 프로그램이라서 이 부분 성과를 지금 분석하기에는 아직도 이른 부분이 있습니다.

연말 정도면 대강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5월에 저희가 여성발전센터 활성화를 위한 운영개선협의회를 운영을 해서 4개 조직하고 센터하고 우리 팀하고 해서 한 두 달 동안 매주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안을 네 곳이 같이 발전하기 위해서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崔鍾午 委員;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다음은 趙相勳 委員 질문해 주세요.

○趙相勳 委員; 반갑습니다.

지금 중앙부처에는 여성부가 없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여성특위.....

○趙相勳 委員; 여성특별위원회가 있고 장관급으로 위원장이

돼 있죠?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趙相勳 委員; 지방자치단체 중에는 女性政策官室이라는 제도가 관리관이든 아니면 이사관으로든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1급의 경우는 없고요. 이사관급으로 돼 있는 데는 있습니다. 3급으로요.

○趙相勳 委員; 여성정책관이나 특별부서로, 실·국으로 돼 있습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경기도의 경우에는 여성정책국으로 돼 있습니다.

○趙相勳 委員; 지방자치단체들이 조금 앞장 서 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정책의 목표방향에서 보면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공유하는 평등사회 구축, 상당히 좀 어찌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슬로건이라기보다는 중앙부처 수준의 슬로건이고 그런 데 반해서 전체적으로 하신 일을 보면 사실은 옛날의 사회복지국 소관 복지업무수준에 불과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더 창의적이고 개발된 사업들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것에 비하면 기존의 사회복지업무의 일환을 집행하는 기관 정도에서 아직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의 대다수가 그런 내용으로 돼 있고 제일 뒷부분에 보니까 성평등 의식 제고 및 차별 개선이라고 그래서 몇 가지 행사를 계획하신 게 있는데요.

앞으로 오히려 뒷부분의 내용들이 앞으로 많이 나와 주시고 일반집행과 관련된 사항들은 일상적인 보고에서 빠져도

되지 않을까 그런 느낌을 처음 갖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 가지씩 여쭙보겠는데요. 일단 자료로 필요한 것을 보겠습니다.

7페이지 보면 특수보육사업 지원 등 해서 66억이 돼 있습니다. 사실 영아와 장애아들에 대한 보육시설이 대단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가 필요한지도 제대로 추산이 돼 있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아와 장애아, 특히 장애아 같은 경우에 보육시설은 대단히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거의 눈에 띄지 않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현황이나 앞으로의 계획이 있으시면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8페이지 보면 초등학교 36개소에 방과후 교실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 보면 초등학교마다 방과후 교실을 많이 활성화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방과후 교실을 일반시설에서 확충하는 것은 저소득층 부모나 아니면 부모들이 외출하고 일 나가서 어디 갈 데가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초등학교에서도 이런 방과후 교실을 많이 설치하고, 물론 비용을 징수해서 하기는 합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특기교육을 합니다.

○趙相勳 委員; 특기교육을 하는데 특기교육에 대한 부담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방과후 교실을 찾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초등학교에 있는 방과후 교실 제도를 많이 활성화한다면 오히려 더 유용하고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특기교육은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에 만든 제도로써 특기교사를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고 특기교육을 저렴하게 시키겠다는 목적으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방과후 교실에서는 방과후 한 5시간 정도 오후 1시에서 저녁 6시, 7시까지 부모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보호하고 교육을 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두 시간의 특기교육, 특기교육은 매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것이겠지만 방과후 교실은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매일 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趙相勳 委員; 사회복지서비스라는 것이 여러 기관 부서 또는 갈라져 있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아니면 효율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활용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는데요.

사실 구립교육시설 같은 데 보면 최근에 사회복지관마다 방과후 교실을 신청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이 좋아하고, 오면 자유롭게 컴퓨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학원강의, 간단한 영어나 이런 것도 가르쳐 주고 그래서 좋기는 한데 사실은 초등학교만큼 좋은 시설과 여건과 아이들을 모아 놓을 수 있는 공간이 거기만큼 좋은 데가 없거든요.

오히려 이해찬 장관은 특기교육이라는 형태로 꾸려오고 비용을 징수해서 강사를 불러다 실시를 하는데 좀 교육청과 면밀히 협의를 하면 모든 학과가 끝난 이후에 초등학교의 공간을 일부 활용해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아이들을 보호한다라는 측면이 강하니까 그런 제도를 연구해 볼 필요는 없을까 하는 것인데 어떠실까 모르겠네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저희도 초기에는 초등학교가 제일 바람직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현장을 나가보니까 잘 운영하시는 데는 굉장히 잘 운영하시는데요.

겨울에 방과후 교실 운영하는 초등학교를 가보니까 방학중이기 때문에 히터도 하나도 안 돼 있고 그 방만 운영이 되니까 그 방은 따뜻하더라도 바깥에 나오면 복도가 얼어 있어요. 화장실도 그렇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있었어요.

교장선생님들이 그 동안은 적극적으로 운영을 안 해 주셨는데 관심을 가지고 운영을 잘 하시면 잘 하실 수도 있고 홍보도 해서 우리는 이렇게 1, 2, 3학년 방과후 교실까지도 잘 운영하고 있다, 이런 학교도 있었습니까만 다수의 학교에서는 그렇게 열심히들 해 주시지는 않았습시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상황을 점검을 해서

○趙相勳 委員; 검토를 해 보시고요. 그게 선생님들의 퇴근 시간도 물려있어요. 그리고 학교시설이라는 게 특정사람들을 위해서 완전히 개방해 두기도 어려운 처지에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과후 교육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인력을 대줄 수가 있다면 학교라는 공간은 대단히, 그러니까 교장선생님이 신경을 쓰지 않고 시나 구청에서 파견한 전문프로그램 운영자가 방과후 교실을 학교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한다면 어쨌든 아이들 모으기도 좋고 공간도 좋고 그런 것도 활용해 볼 여지가 있지 않느냐?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학교는 학교대로 지역사회와 벽을 쌓고 있고요. 교육청은 교육청대로 구청이나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사실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히려 어느 한쪽이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고 상대방과 뭔가 좋은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있었으면 좋는데 제가 몇 년 보아도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별로 좋은 사업을 가지고 논의해 본 적은 거의 못 봤습시다.

그러니까 한번 검토를 해 봐주시면 좋고, 예를 들면 초등학

교 36개소에서 운영되는 실태하고 다른 곳에서 운영되는 실태하고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 보시면 나름대로 방안이 나올 것 같습니다.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작년에 저희들이 본 것으로는 복지시설의 프로그램이 제일 좋았었습니다.

○趙相勳 委員; 전문요원들이 있으니까요.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프로그램과 교환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학교나 보육시설에서는 그것 외에 한 교사가 운영하는 그 이외의 프로그램 되기가 어려웠습니다만 복지관의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거기에서 함께 운영할 수가 있어서 저희는 오히려 복지시설과 종교시설이 잘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만 일체 우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趙相勳 委員; 점검이라기보다도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복지관들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니까 문제는 원하는 아동이나 부모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줄을 섰고 한 명 빠져야지 들어오고 이런 것인데 어쨌든 그런 서비스를 일반사람들이 많이 요구하고 있다면 그만큼 공간을 무한정 만들어 낼 수도 없고 그렇다면 학교라는 공간을 이용해서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유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검토해 봐주십시오.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실태과약을 하겠습니다.

○趙相勳 委員; 그 다음에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영상매체 제작이 되겠습니다만.....

○趙相勳 委員;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결식아동문제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과 비슷하게 취학아동에게는 석식이 제공되지 않습니까?

미취학아동은 중식, 석식이 제공되는데 취학아동의 토요일과 일요일에 중·석식은 어떻게 합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그 부분은 초기에는 저희가 4월부터 수행할 때 그것은 교육청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돼 있었습니 다만 교육청에서 그것을 이의제기를 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行自部에서 받은 교육청에서 내고 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서 아직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자치구에서 예산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趙相勳 委員; 그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토요일과 일요일은 누구도 서로 책임지지 않는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서 어려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협의가 됐다면 잘 되셨고요. 장기적으로 물론 비용의 처리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우리 교육청이 요보호아동에 대한 문제를 교육청이 학교라는 공간만을 통해서 해결하기는 참 어렵거든요.

그야말로 학기 중 점심때 밥 한 끼 주는 것은 가능하더라도 그 외 나머지에 대해서는 보호할 능력도 여건도 안 된단 말입니다.

오히려 중식지원과 관련된 예산업무는 한 군데에서 통괄해 주는 것도 상당히 괜찮지 않을까 하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서로 누구 관할 따져가면서 예산 갖고 서로 싸우지 않게…….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지원이 돼야

되니까요.

○趙相勳 委員; 요보호아동은 결국 지역사회 책임이지 제가 봐서는 학교의 책임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사회가 책임을 지고 시나 자치구에서 책임을 지고, 또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는 행정조직이 가까이에서 다양한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그런 것들을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고 중식비는 학교에 가는 날 만큼은 구청에서 그 비용을 학교에 보내주거나 어떤 그런 유의 어느 한 군데로 통합이 되면 어떨까 하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은 行自部에서 그렇게 정리하셨다니까 걱정은 안 되네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李喆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하면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님은 대단히 유능하시고 참 제가 3기 때부터 지금까지 하면서 또 문교상임위원장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시면서 보기 드문 그러한 정책관으로 봐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대부분 이야기의 술어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 개선하겠다, 의례적인 그러한 문구가 몇 년간을 죽 제가 의례적인 문구에 대해서 굉장히 싫증을 느끼는 단어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도 조금쯤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 상임위원들은 서울시의회에 들어와서 의장서부터 부의장서부터 운영위원장서부터 현재 이렇게 전부 상임위원장급 이상을 해 오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면에서는 오랫동안 노련한 그러한 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의견들이 근 1,000억원에 가까운 돈이 예산

이 나가는 이 문제를 이번에는 좀더 계획적이고 개혁적인 문제에서 하지 않으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저한테 제시해 왔습니다. 여성발전센터 운영내실화에 대해서는 모두가 관심을 가져온 것입니다.

오늘은 전체적인 하나의 업무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으로 의문점만 몇 가지 질문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대단한 관심으로 접근해 갈 것입니다.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여성정책관계서는 여성발전센터를 1년에 몇 번이나 순방하십니까, 현장에 가보시기는 합니까?

○女性政策官 盧美惠; 네, 가릅니다. 1년에 한 곳에 한 번 정도 가게 됩니다.

○委員長 李喆鎬; 거기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어느 정도 우리가 상상 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아까 李政恩 委員님도 질문을 했어요. 유능한 강사 확보, 강사평가제 제도, 전문적인 그런 전공분야의 강사가 모두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지금 인정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전혀 자격 없는 사람이 그 분야의 강사로 재직하고 있다는 것도 지금 현재 발견되고 있는데 그런 것 알고 계세요? 모르시죠? 저만도 못해요.

저는 불과 상임위원장 된 지 2달밖에 안 되었지만 여기에 대한 지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연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쯤은 예산 편성할 때 아픈 가슴을 가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지금이라도 철저한 그러한 감시 감독 하에 예산이 서울시 시민의 혈세가 다른 데로 누설되지 않는

그러한 관계로 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 관계공무원들은 시민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자세가 아니라 봉사와 헌신적인 노력의 자세로 지도하는 자세라는 것을 제가 위원장 된 이후로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이고 그러한 방향으로 운영되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볼까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지적되거나 논의된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 소관업무가 당초 계획한 대로 충실히 달성될 수 있도록 기대효과와 집행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21회 임시회 제2차 보건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후 2시부터 본회의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議事棒 3打)

(15時 59分 散會)

○出席委員

李喆鎬 李禮子 李政恩 姜榮元

金種求 閔鍊植 李英順 洪承采

趙相勳 崔鍾午

○專門委員

安錫洙

○出席公務員

女性政策官 盧美惠